



하늘에서 내려다 본 나주 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733만4000㎡(221만평) 부지에 조성된 혁신도시에는 30%가 넘는 녹지공간이 들어서는 등 인구 5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전원형 명품 자족도시로 조성돼 있다.

인구 1만명 돌파... '명품 전원도시' 활력

빛가람혁신도시 현주소

◇완벽한 기반시설=계획도시인만큼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도시가스, 통신 등 기반시설은 완벽하다. 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사통팔달로 뻗은 진입도로도 매력적이다. 빛가람로, 서측도로, 동측도로, 북측도로 등 4개 노선에 총 7.75km의 진입도로가 조성돼 있다. 다만 북측진입로는 국도 1호선과 접속 부분에 대한 입체교차로 설치를 놓고 전남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교통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구 유입 가속도=나주 혁신도시는 전체 면적 중 녹지공간이 35.3%에 이를 정도로 전원 도시의 정주여건 등이 갖춰지면서 인구유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말 기준 주민은 1만1040명이다. 주택공급은 2만호(단독주택 2048호, 공동주택 1만7952호)를 계획하고 있다. 공동주택 6072호가 준공됐으며 3678호는 입주자가 완

빛가람 나주혁신도시가 인구 1만명을 돌파하는 등 도심 속 명품 전원도시의 그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지난 2007년말 기공식을 시작으로 조성 8년이 지난 현재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공공기관 이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16개 이전기관 가운데 1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2개 기관은 내년 중으로 사육을 완공·이전할 계획이다.

**조성사업 8년... 공공기관 16곳 중 14곳 이전 완료
녹지공간 35.3%... 의료·금융·쇼핑 610여개 입점
전기·가스·통신 기반시설 완벽...약취민원도 해결**

료됐다.

입주민도 나주가 아닌 외지에서 입주한 비율이 83.3%에 이를 정도로 외지 인구의 유입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의료·행정·학교시설 등 편의시설도 가득=학교시설은 14개교(유치원4, 초5, 중3, 고 2)가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개교

된 학교는 5개교다. 나머지 9개교는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개교한다. 또 의료시설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금융기관, 쇼핑시설 등 610여개의 생활편의 시설도 입점을 마친 상태다.

혁신도시 내에는 주민센터와 치안센터를 비롯한 8개의 관공서가 있으며 관공

행 빛가람지점 등 17개의 금융기관이 입점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시는 또 혁신도시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80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조만간 조성할 계획이다.

◇약취 등 각종 민원도 해결=입주민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혁신도시 주변 약취도 오는 2017년이면 해결될 예정이다.

돼지사육 농가들이 많은 호혜원의 가축분뇨 약취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비용 48억원을 포함해 가축분양비 114억 원, 보상금 165억 원 등 3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나주시와 호혜원 주민들이 이 같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로 입주하는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 25일 개장

나주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이 오는 25일 정식 개장한다.

11월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임시개장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25일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서는 200여가지의 농산물과 100여 종류의 가공식품이 판매된다. 특히 지역산 주재료를 활용한 반찬과 제과·제빵류, 양질의 정육류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

할 예정이다.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다. 제1기 로컬푸드 주부 서포터즈의 모집에는 40여명이 지원했으며, 소정의 교육 수료 후 직매장 홍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생산자들 역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현재 직매장에서는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포스 활용법, 소포장 방법 등을 가르치는 실습교육이 진행 중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열려

나주소방서는 "지난 10일 나주시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화합과 소통을 위해 2015년 나주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능력을 높이고 상호간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나주시 의용소방대 연합

회 박재권, 김영애 회장을 비롯한 31개 대의 의용소방원 등 790여 명이 참석해 경연을 펼쳤다.

박용기 나주소방서장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며 봉사하는 의용소방대가 되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농촌개발사업' 국비 확보 발로 뛰다

강인규 시장 농식품부 방문... 180억 지원 건의

나주시가 낙후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속도감 있는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를 오가며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9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거점면 소재지권 개발사업에 대한 농촌중심지활성사업 지원

을 건의했다. 강시장은 또 지역민의 안정적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산포 흥련마을 등 4개 마을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주민들의 행복감 성취도 향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8개 사업 등에 국비 1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2016년 신규사업으로 다도 도래 신규마을조성 등 4개사업 국비 26억3900만원을 확보했으며, 반남권역단위 종합개발 등 4개지구 계속사업 국비 12억1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영산포~승촌보 관광선 '영산강호' 운항 시작

나주 영산포에서 승촌보 구간을 오가는 유일한 관광선인 '영산강호(사진)'가 운항을 시작했다.

'영산강호' 1층에는 객실과 매점, 선실, 화장실이, 2층에는 선상공연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승선 정원은 83명이며, 최고 속도는 15노트(시속 26km)다. 영산포에서 승촌보까지 10km 구간을 30분간 운항한다.

평일에는 영산포 선착장에서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구간을 운항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산포에서 승촌보 구간을 1일 3회 정기 왕복한다.



요금은 승촌보 구간 편도 이용시 성인 8000원으로 승촌보 선착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운항내용은 영산포 선착장(061-332-1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복지사각지대 발굴 53가구 지원 결정

나주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에 대해선 조만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나주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찾아낸 53가구의 생활 수준을 분석해 국민기

초생활 수급자 책정 4가구, 긴급 지원 4가구, 양곡지원 3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42가구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생활여건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 돌봄서비스, 가사·간병지원 등 공적 서비스는 물론 민간과 연계하는 민간후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경축 2015 광주 인쇄인의 날 행사

주요 행사: 광주인쇄인의 날 행사, 인쇄기술경진대회 시상식, 광주 인쇄인 체육한마당

일시: 2015년 11월 14일(토), 09:30~16:00
장소: 광주빛고을체육관(광주 염주동)
주최: (재)광주디자인센터(광주인쇄소공인지원센터)

“ 광주인쇄소공인지원센터가 광주인쇄산업(소공인)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인쇄소공인지원센터는 인쇄산업 소공인 집적지를 중심으로 정보제공, 맞춤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 지원업종 및 대상 ·

지원업종: 사업자등록기준 [제조업] - (종목) 인쇄, 제판, 제책, 복제 등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서남동 소재 인쇄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 주요사업 ·

특화사업 - 경영자과정, 재직자전문교육, 정보교류지원 등
기업지원 - 전문가컨설팅, 작업환경개선, 상품화지원 등
홍보마케팅 -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판로확대, 브랜드기치 제고
공동사업 - 전시홍보관 운영, 경진대회 및 인쇄인의 날 행사 등

광주인쇄소공인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96 (서석동 47-1) 광주영성문화회관 5층
TEL. 062.236.5010~4 / FAX. 062.236.5015